

## 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2. 12. 8.(목) 06:00 ~ 23:00
- 상담건수: 666건

## II. 주요의견 내용

### ○ 방송 호평(2명)

-프로그램명 : 「인간극장」 ‘강 도공, 오늘도 꿈을 빛낸다’

-방송일시 : 2022. 12. 8.(목) 1TV (07:50-08:25)

충북 연풍마을에서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강경훈·조경일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. 부부는 서울에서 도예학원과 공방을 운영했는데,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연풍마을로 내려온 사연이 인상적이었다. 느티나무의 질감을 모티브로 한 강경훈 씨의 작품과 청개구리를 모티브로 한 조경일 씨의 작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. 도공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부부를 응원하겠다.

### ○ 제목 제언(2명)

-프로그램명 : 「통합뉴스룸 ET」

-방송일시 : 2TV (월-목) (17:50-18:30)

꼭 필요한 경제 지식을 제공하고 폭넓은 비즈니스 뉴스를 전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. 그런데 제목에 영어 줄임말이 쓰여 생소하다. 방송이 시작될 때 화면에 ‘Economy Today’라고 소개하긴 하지만, 그 화면을 놓친 시청자들은 제목을 이해하기 어렵다. 본인은 이제까지 미국의 SF 영화 ‘ET’를 떠올렸다. 공영방송에서 줄임말이나 외래어 대신 우리말로 제목을 지어주었으면 한다.

## 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 - 없음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#### IV. 일일 상담내용

##### 1. 상담실적 : 총 666건

###### 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<sup>1)</sup>	계
368	19	1	-	278	666

###### 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319	191	17	-	-	139	666

###### 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120	546	-	666

###### 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467	5	98	96	666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<b>【편 성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기죽오락관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후속 방송 요청</li> </ul> </li> <li>○ 「디즈니 만화동산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후속 방송 요청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【보 도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사사건건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연자 섭외 제언</li> </ul> </li> <li>○ 「통합뉴스룸 ET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목 제언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【시사·교양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생로병사의 비밀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송 제언</li> </ul> </li> <li>○ 「인간극장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송 호평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【라디오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주진우 라이브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송 제언</li> </ul> </li> </ul>	<p><b>【방 송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6시 내고향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연근차 문의’ 연락처 문의 29건</li> </ul> </li> <li>○ 「2TV 생생정보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강남 한우 정육식당’ 연락처 문의 27건</li> </ul> </li> <li>○ 「아침마당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출연자’ 연락처 문의 19건</li> </ul> </li> <li>○ 「가요무대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방청 신청’ 문의 12건</li> </ul> </li> <li>○ 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편성 시간’ 문의 9건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【기 술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난시청」 문의 5건</li> </ul> <p><b>【경 영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41건</li> <li>○ 「수신료」 문의 15건</li> <li>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24건</li> <li>○ 「전화교환」 문의 10건</li> <li>○ 「주차」 문의 1건 외 7건</li> </ul> <p><b>【기 타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96건</li> </ul>

1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

의견	세부내용
제목 제언	<p>○ 「통합뉴스룸 ET」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TV (월-목) (17:50-18:30)</li> <li>- 꼭 필요한 경제 지식을 제공하고 폭넓은 비즈니스 뉴스를 전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. 그런데 제목에 영어 줄임말이 쓰여 생소하다. 방송이 시작될 때 화면에 ‘Economy Today’라고 소개하긴 하지만, 그 화면을 놓친 시청자들은 제목을 이해하기 어렵다. 본인은 이제까지 미국의 SF 영화 ‘ET’를 떠올렸다. 공영방송에서 줄임말이나 외래어 대신 우리말로 제목을 지어주었으면 한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 시사 · 교양 ]	
방송 제언	<p>○ 「생로병사의 비밀」 ‘밀가루 끊어보니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2. 12. 7.(수) 1TV (22:00-22:50)</li> <li>-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는 시청자이다. 이날 방송은 ‘밀가루 끊어보니’라는 주제로, 밀가루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. 이렇게 밀가루의 해로움을 주제로 한 방송이 방영될 때마다 매출이 확연하게 감소한다. 밀가루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. 공영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, 모두가 사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주시기 바란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방송 호평	<p>○ 「인간극장」 ‘강 도공, 오늘도 꿈을 빛는다’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2. 12. 8.(목) 1TV (07:50-08:25)</li> <li>- 충북 연풍마을에서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강경훈·조경일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. 부부는 서울에서 도예학원과 공방을 운영했는데,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연풍마을로 내려온 사연이 인상적이었다. 느티나무의 질감을 모티브로 한 강경훈 씨의 작품과 청개구리를 모티브로 한 조경일 씨의 작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. 도공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부부를 응원하겠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의견	세부내용
[ 라디오 ]	
방송 제언	<p>○ 「주진우 라이브」 (4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R (월-금) (17:05-18:56)</li> <li>- 항상 KBS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춰놓는 청취자이다. 해당 방송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분석하는 시사 프로그램인데, 진행자가 정치색이 강해 듣기 불편할 때가 있다. 또한 민주당 측 패널이 섭외되는 비중이 많은 점도 공정하지 않게 여겨진다. 앞으로는 조금 더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란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